한국임업진흥원

월간 해외산림투자 정보







'17년 9월호 한국임업진흥원



Contents

- 1. 임업 시장 동향
- II. 임산물 시장의 이해 CPO Market
- Ⅲ. 각 나라별 임업 뉴스
- Ⅳ. 한국임업진흥원 소식



(1) 유럽 Log Market

■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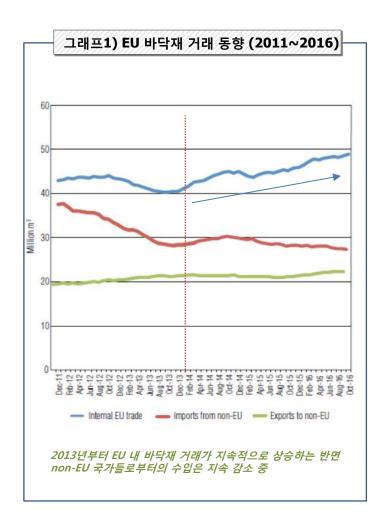
- EU내 국가간 바닥재(Wood Flooring) 거래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 처음으로 EU의 활엽수 바닥재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EU 내에서의 생산품은 수입품의 시장점 유율을 점차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래프1)에서 보이듯, 2013년 12월부터 EU 내의 바닥재 거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U내에서 바닥재 수요가 상승하였고 동 유럽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된 바닥 재가 EU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의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품질향 상과 마케팅 강화 및 유로화 약세로 2016년 바닥재 제품 거래 증가에 기여하였다.

EU의 바닥재 수입은 2016년에 꾸준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교역이 2005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EU 바닥재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수입바닥재의 60% 선으로 건재하지만 최근 점유율을 다른 나라에 많이 빼앗기기 시작했다. EU 바닥재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목재가 열대지역이 아닌 온대지역산이라는 점도새로운 변화였다.



견고한 오크 바닥재도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지만, 라미네이트와 비목재 제품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2016년 인기 순위에는 물푸레나무가 오크의 뒤를 이었고, 밤나무와 월넛이 그 뒤를 추격했다. 목재처럼 보이는 유사제품의 출시도 생산업자에게 큰골치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바닥재의 소재가 목재인 것과 목재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Source: ITTO Tropical Forest Update (`17 Oct.)



- EU의 열대 바닥재 수입의 지속적인 하락

그래프2)에서 보듯, EU의 열대국가산 바닥재수입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EU는 인도네시아로부터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기간 동안 116만㎡를 수입했다. 이는 2014년 11월 ~ 2015년 11월의 145만㎡가 수입된 것보다 대폭하락된 수치이며, 같은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산의 수입은 131만㎡에서 94만㎡로 하락했다.

그래프2) EU 바닥재 수입현황 (2011~201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3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EU산품질 개선과 동유럽산 유입)

- 신규 EU 바닥째 품질표시 (EU Ecolabel)*

EU는 2017년 1월 25일, 목재, 코르크, 대나무 소재에 대한 EU 친환경 표준인 에코라벨 품질표시제도 시행 소식을 EU 저널에 공식 발표했다. 이 신규 품질표시제도에는 목재, 코르크, 대나무, 등나무 등, 최종상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추가로, 친환경 표준 에코라벨은 생산과정에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한 동시에, 내연제, 접착제, 마감제에 유해물질 사용 또한 금지했다.

신규 에코라벨 제도는 강제성이 없으며 생산자, 수출업자와 유통업자가 자사품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EU회원국의 녹색 조달 정책에서도 에코라벨을 택한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EU Ecolabel이란?



1993년에 처음소개된 친환경 상품 인증으로 16년 8월부터 목재가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유해 물질 잔류여부,내구성,지속가 능한 원목사용여부 등을 평가 하여 통과된 제품에 한해 옆 의 에코라벨을 부착함. 이러한 품질표시제도로 제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EU는 2016년 열대국가산 바닥재의 수입이 18% 하락한 이후, 2017년 1/4분기에는 7% 하락한 9,900톤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9%, 2,300톤), 인도네시아(-32%, 2,000톤), 베트남(-23%, 700톤), 페루(-2%, 600톤)를 비롯한 모든 주요 열대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하락했다.

2017년에 열대국가산 바닥재 수입이 하락하는 것은 유럽의 제조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확대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EU의 가장 큰 바닥재 수입국인 중국도 2016년에 전년대비 12%하락한 341,000톤을 기록했으며, 2017년 ¼분기에도 전년대비 12%하락한 82,000톤을 기록했다. 무역 데이터를 살펴보면 EU내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동유럽산 제조품 수입 거래가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중동으로의수출이 아직 미비하지만, EU의 바닥재 수출은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EU 向 바닥재수출업자의 상황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한편, 2016년에 EU의 바닥재 수출 1위로 확고한 자리를 잡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다소의미 있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면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도네시아산 목재의성장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기 때문이다.

*EU 목재규정(EU 995/2010) 주요내용 : EU는 국제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벌목으로 인한 산림파괴와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베출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The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Action Plan (FLEGT AP)을 채택 인도네시아산 목재의 전체 수입량은 줄지 않 았으며, 놀라운 것은 약 40%를 차지했던 불법 목재가 FLEGT가 도입된 2016년 11월 이후 자 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 국제 바닥재 박람회에서 가능성을 발견

2017년 1월 독일에서 개최된 'DOMOTEX' 2017에서 유럽산 바닥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DOMOTEX 2017에서도 다양한 색감, 질감, 마감의 오크 바닥재가 주를 이뤘지만, 다른 종류의 목재 사용으로 차별화를 꾀한 업체들의 시도도 많았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레이, 그레이와 베이지 혼합("그레이지")가 어두운 바닥재의 최고 인기판매 제품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바닥재에서 새롭게 뜨는 트렌드는 중고와 거친 느낌의 패턴을 접목하여 재활용품을 사용한 듯한 빈티지풍이다.

빈티지 풍의 인기는 패션에서도 인기를 끌듯, 천연과 라미네이트 바닥재 생산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라미네이트는 특히 정교한 디지 털 프린팅 기술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목재가 잘 사용되지 않는 부엌과 화장실의 바닥재 사용을 시도한 디스플레이도 눈에 띄었다.



- 소비자의 환경 의식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서유럽의 주요 열대 목재 수입 국가의 건축 업과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환경 보존을 중요한 안건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EU는 최근에 목재, 코르크, 대나무 소재 바닥재에 에코라벨 제도를 도입했다.

EU 수입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기후 변화, 벌채, 불법 생산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투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U 국가 별로 선호도 차이는 다소 있지만 바닥재로서 열대 목재의 사용은 소비자의 취향과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열대산 목재는 동유럽에서는 인기가 없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발틱해 국가에서는 수입 후 가공을 통한 수출 용도로만 사용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열대목보다 현지에서 생산된목재의 선호도가 더 높다.

EU에서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열대 목재보다는 옅은 색상의 오크로 다시 유행이 바뀌고있다. 이런 트렌드는 티크, 방키라이, 멀바우 같은 열대목 바닥재의 수급이 어려워진 이유도있다.

- EU 건설업의 느린 회복 전망

2017년 7월에 열린 제 83회 Euro-Construct Conference에서 유럽 경제가 건설업에 힘을 싣고 있지만 향후 2년 동안은 건설업의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Euro-Construct Conference에서 2016년 유럽 내 건설업 성장성이 전년 대비 0.5% 상승한 2.5% 라고 보고됐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유연성 있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 6개월 전의 전망보다 다소 상승한 전망치이다. 2016년 ~ 2018년 동안에는 성장성이 8% 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2019년부터는 성장성이 더디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실업지수가 낮아지면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렴한 금융 조달과 해외투자자의 수요도호의적으로 작용하여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 개혁의 미진한 움직임과 더딘 성장세로 인해 전체적인 회복세는 느린 편이다. 전체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 해 유럽 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위 기 전보다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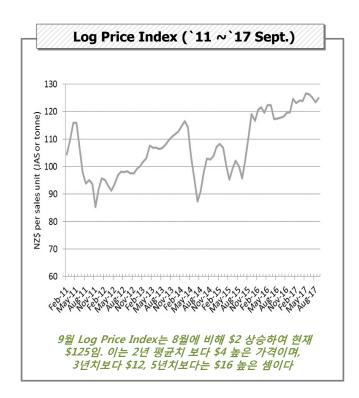
(2) New Zealand Market Review*

내수용 목재 시장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뉴질랜드 제 3의 도시인 Christ Church 지역의 수요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Otago Lakes지역의 Queenstown 건설 현장에서의 수 요는 증가했다. 고층 아파트 공사비 대출에 은 행들이 높은 청약율을 요구하는 반면, 수요자들 은 先분양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도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뉴질랜드 다른 지역의 수요도 대체로 잠잠한 편이며, Hamilton과 Tauranga의 목재업체들 역시 전년 대비 하락한 실적을 보이고있다. 이 지역들은 아직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목재업체들이 목재의 높은 수출가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verage Current Log Price (`17 Sept)

Log Grade	\$/tonne at mill	\$/JAS m3 at wharf
Pruned (P40)	182	179
Structural (S30)	120	11000
Structural (S20)	108	
Export A	100	138
Export K		132
Export KI		123
Pulp	47	



■ Domestic Log market (Pruned)

내수용 목재 시장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호주와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는 꾸준하며 목재업체의 재고도 안정적이다.

■ Domestic Log market (Non-Pruned)

수출용 목재 가격은 변동이 없다. 중국의 저가 저 품질 목재 수요는 꾸준히 높다. 호주의 신규 주택 공사는 줄었지만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중동으로 수출하는 목재업체들이 종종 있지만 이들은 뉴질랜드의 무역금융 서비스 (수출자금 확 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뉴질랜드 제재목 수출 연왕 (2017)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호주 와 동북아시아, 미국 등 선진국들로의 제재목 수 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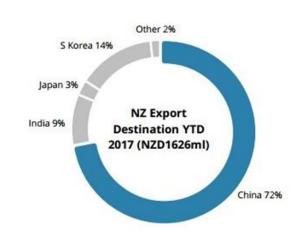
(NZD ml)		Month	v Month	
Dest.	Jul 16	Jul 17	Difference	Δ%
ASEAN	16.8	14.2	-2.6	-15%
Aus	10.5	14.0	3.4	33%
China	10.4	12.8	2.3	22%
E Asia	7.2	9.5	2.3	32%
USA	16.1	18.4	2.3	14%
Other	14.8	11.3	-3.5	-24%
Total	75.9	80.1	4.2	6%
(NZD ml)		12 M	onths To	
Dest.	Jul 16	Jul 17	Difference	Δ%
ASEAN	146	154	9	6%
Aus	140	119	-21	-15%
China	154	133	-21	-14%
E Asia	103	95	-8	-8%
USA	196	196	1	0%
Other	123	138	14	12%
Total	861	835	-27	-3%

- 뉴질랜드 원목 수출 연왕 (2017)

원목 수출의 경우 중국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일본으로의 수출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NZ LOG EXPORT STATISTICS (HS 4403)

Reporting Month: Jul 2017 Published: 29 Aug 2017



(NZD ml)		Month	v Month	
Dest.	Jul 16	Jul 17	Difference	Δ%
China	137.9	184.6	46.7	34%
India	29.4	23.5	-5.9	-20%
Japan	1 3.2 7.0 3	3.8	118%	
S Korea	21.5	31.8	10.3	48%
Other	15.0	3.2	-11.7	-79%
Total	207.0	250.1	43.2	21%
(NZD ml)	120	12 M	onths To	
Dest.	Jul 16	Jul 17	Difference	Δ%
China	1,534	1,952	418	27%
India	258	257	-1	0%
Japan	59	72	13	21%
S Korea	358	403	45	13%
Other	61	46	-15	-25%
Total	2,270	2,730	460	20%

- 대(對) 중국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적절한 수준이다. 중국 내 재고는 330만m³ 수준이고 일간 소모량은 6~6.5만m³ 수준으로, 거의 모든 등급의 목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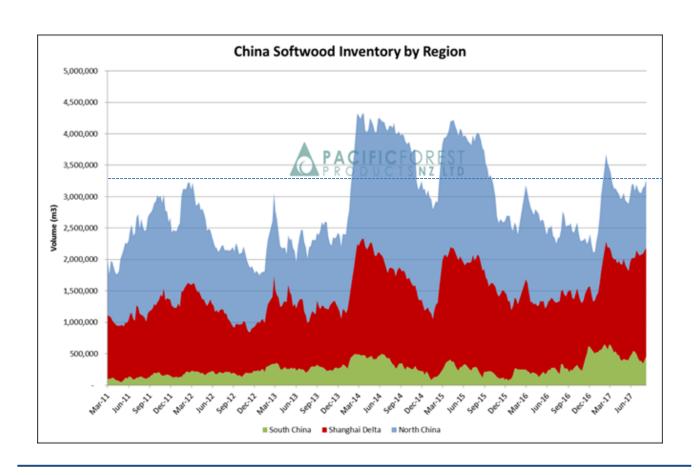
지역별 재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수요와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뉴질랜드의 겨울이 지나면서수요대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소폭 상승했다. 10일 동안 큰 태풍으로 홍콩행 선박 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발틱지수는 \$10 상승했으며 계속해서 상승중 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해상운임이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벼운 목재용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완율

NZD 대 USD 환율은 7월의 0.75으로 최고치를 기록 후 꾸준히 하락 중이다.





(3) Rubber Market*

■ 중국 고무 선물가격의 9월 대폭락

상해 선물 거래소에서(Shanghai Futures Exchange: SHFE) 7월부터 지속적 상승세를 이어가던 천연고무 가격이 지난 9월 모든 거래종 목중 가장 크게(20% 이상) 폭락했다.

월 초에 최고가였던 톤 당 €2,183에서 €1,734 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특히, SHFE에 따 르면 천연고무 선물가격은 9월 28일 하루에만 7%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거래종목 이 중국의 수요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농산물로 분류되는 천연고무의 경우 수요 감소로 인해 예 외였다.

었지데 덮친 격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9월 중순부터 고무 수출량을 줄이는 것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고무 수요의 1/3에 해당하는 타이어 수요가 최근 제품 폐기 처리관련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이유로 감소한 것도 9월 가격 대폭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말레이시아 생산량(8월)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천연 고무 생산 량은 2017년 8월 기준 61,252톤으로 전월 55,121톤에 비해 11.1%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소규모 생산업자들의 생산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천연 고무 수출은 2017년 7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55,563톤을 기록했으 며, 천연 고무 수출의 주요 5대 국가는 중국, 독 일, 이란, 미국 및 핀란드였다.



Rubber Market Price (SPOT)**

USD/100kg	LATEX		RSS		TSR
Day/Weekend(WE)	Malaysia Latex 60%	Bangkok RSS3	Kottayam (India) RSS4	Bangkok STR'	Kuala Lumpur SMR'
1 st Week Sept.'17 2 nd Week Sept. '17	139.25 141.27	194.98 192.12	208.81 211.74	168.52 167.90	168.50 167.39
3 rd Week Sept. '17	129.23	181.00	208.20	159.24	153.41
4 th Week Sept. '17	124.12	171.12	205.98	152.84	149.30

*Source: Rubber and Plastic News (`17.10.6, `17.10.12)

**Source: ANRPC Weekly Price (`17.9.29)



(4) Wood Pellet*

Asia Market

한동안 한국 발전소 수요 증가로 상승하던 베트남산 우드펠렛 가격이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이유로는 그동안 수요를 이끌었던 한국 발전소들의 수요 입찰이 추석 연휴와 더불어 감소했기 때문이다. FOB 가격은 9월 말 기준 전주 대비 \$1/t 가량 감소한 \$102.57/t을 기록하였다.

최근 남동발전(Kospo)의 입찰에서 요구한 품질 기준이 기존 베트남산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 제품의 추가 오퍼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산 우드펠렛 역시 공급에 차질이 있어 납기일을 맞추지못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 우드펠렛 수급/생산 현황 ('15기준) **** 우드펠렛 수급/생산 현황 ('15기준) CHINA Production 370,000" Exports: 52,025" Imports: 7,353" THAILAND Production 115,000" Exports: 1,470,684 Production 1,500 Production 1,500 Production 15,000" Exports: 1,331" WIETNAM Production 1,500 Production 1,500 Production 15,000" Exports: 1,331" More than 99% of Vietnam's 2015 wood peliet production was exported, and 38% of its exports was shopped to Korea. MALAYSIA Production 180,000 Exports: 168,588* Imports: 396* INDONESIA Production 2,500 Production 2,500

Market Price* (Forward & Spot Trend) 베트남 우드펠렛 - FOB SPOT 가격 \$/t **Delivery Period** Mid Origin 102.57 **FOB Vietnam** Spot 유럽 우드펠렛 - 선도거래 가격 (Forward Price) Bid Ask CIF ARA \$/t 3Q17 149.75 155.75 4Q17 152.50 157.50 153.00 157.00 1Q18 2Q18 153.50 158.50 2018 153.00 159.00 2019 155.50 161.50 2020 161.00 167.00 FOB Baltic £/t 3Q17 111.50 117.50 4Q17 114.00 118.00 117.75 1Q18 113.75 2Q18 114.50 118.50 118.50 2018 114.50 2019 118.00 122.00 2020 120.00 124.00 FOB Portugal £/t 3Q17 110.00 114.00 4Q17 113.00 117.00 1Q18 113.50 116.50 2Q18 114.00 117.00 2018 114.00 118.00 2019 117.00 121.00 2020 121.00 125.00 유럽 우드 펠렛 - 90일 이내 Spot가격 \$/t 가격 9월 8월 7월 CIF ARA \$/t 152.75 149.71 145.87 142.19 FOB Baltic £/t 114.50 112.95 110.07 108.40 FOB Portugal £/t 111.25 110.90 109.56 110.35

*Source: '17 Argus Media Group (Argus Biomass Markets Issue 17-39, `17. 9. 27 기준)

**Source : Biomass Magazine ('16.11.16)



'우드펠렛 수급/생산 현황'에 나타나있듯, 2014년 말레이시아 총 수출물량의 95%, 2015년 베트남 총 수출물량의 98%, 2014년 인도네시아 총 수출물량의 83%가 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FAOSTAT에서 분석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우기의 높은 습도로 인해 우드펠렛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내내 이러한 높은 강수량에 따른 품질 관 리 문제로 인해 공급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태국 역시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급 이 어려운 상황이다.

■ Europ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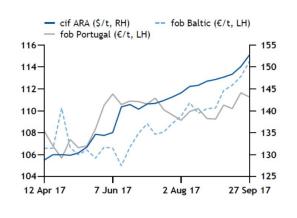
유럽시장의 대표 가격 지표로 볼 수 있는 CIF Amsterdam-Rotterdam-Antwerp(ARA) 현물가격은 동절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월보다 \$7/t 이상 상승된 \$152.75/t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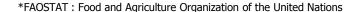
현재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 13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요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산 우드펠렛의 유럽향 수출의 경우 이미 논의 중인 물량의 가격이 \$153/t 보다 높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공급기간도 이미 '18년 1Q까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당분간 미국, 유럽 간의 우드펠렛 수출입 교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Market Price (Forward & Spot Trend)

미국 우드 펠렛 - 선도?	거래 가격 (Fo	rward Pric	es)
	Mid	Bid	Ask
FOB Southeast US			
4Q17		130.00	136.50
1Q18		132.50	138.50
2Q18		132.50	138.50
3Q18		133.00	140.00
4Q18		133.00	140.00
2019		135.50	142.50
2020		141.00	145.00
FOB Southwest Canad	a		
3Q17		119.00	124.00
4Q17		121.00	126.00
1Q18		121.00	126.00
2Q18		120.50	125.50
2018		121.00	127.00
2019		124.00	132.00
2020		131.00	137.00
FOB Northeast US			
4Q17	134.15		
1Q18	136.40		
2Q18	136.40		
3Q18	137.40		
4Q18 2019	137.40		
2019	139.90 145.40		
	143.40		

주요 산업용 우드펠렛 가격 Index*







Ⅱ. 임산물 시장의 이해 - CPO Market

(1) CPO Market 관련 전문가 분석*

■ MPOC 국제 세미나 꾸요 내용

MPOC(Malaysian Palm Oil Council)는 지난 8월 말 '17년 팜오일 시장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17년 하반기에 대한 CPO(Crude Palm Oil) 가격전망을 제시했다. 글로벌 식용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변하고 있음에 따라 하반기시장을 다시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한 예로, 최대 생산지 중 한곳인 미국 북부대두유(Soybean)수확이 9월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CPO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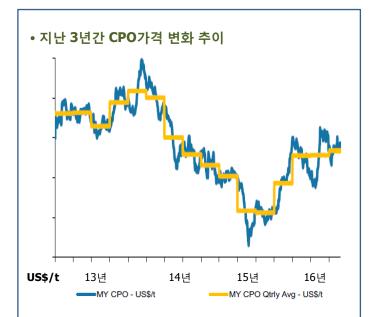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CPO 생산량은 '16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것이고, 중국의 경우, '17년 초반 계약된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대비 공급이 과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네시아의경우 정부의 바이오 디젤에 대한 보조금이 '17년 5월부터 톤 당 20불 지급됨에 따라 CPO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7년 하반기 CPO가격은 다소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대는 말레이시아 파생거래시장 Spot가격 기준으로 1톤 당약 \$550~\$640선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의주요 원인은 '16년 엘니뇨로 인해 감소되었던 공급량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7년 9월부터 더욱 생산량이 많아지는 대두유로인해 CPO가격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Market Price (Forward & Spot Trend)

전문가 패널	패널 소속 회사/기관	예상가격 RM per MT
Ms. Ivy Ng	CIMB Investment Bank	2,600 (\$615)
Mr. Oscar Tjakra	Rabobank, Singapore	2,350 (\$555)
Marketing & Market Development Division	Malaysian Palm Oil Council (MPOC)	2,693 (\$640)

작년대비 말레이시아 산 CPO에 대한 인도, 미국 수요가 급격히 감소, 조만간 재고 감소로 인해 추가 수요 발생 가능성 높음



• 향후 CPO 가격 추이 및 전망

	US\$/t	RM/t	Quarterly	US\$/t	RM/t
2015	565	2,209	Spot	680	3,050
2016	640	2,610	1Q17	675	2,970
2017	625	2,750	2Q17	635	2,794
2018	650	2,900	3Q17	590	2,596
2019	750	3,000	4Q17	605	2,662

*Source: MPOC(`17.9.1)



Ⅱ. 임산물 시장의 이해 - CPO Market

MPOB분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CPO 공급량이 2.7백만 톤 증가하여 20백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전년대비 부족했던 공급량이 다시 회복되어 11월경에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높은 강우량으로 인해 생산량이 다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인도네시아는 전년대비 2.7백만 톤이 증가 하여 34.87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대두유의 경우 9월부터 수확기간이 시작되어 11월 말까지 높은 생산량이 예상된 다. 그 기간동안 기후가 좋지 않을 확률은 약 30%로 낮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두 생산량도 전년대비 10.4~18.2백만 톤 가량 증가하여, 118~122백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도와 중국 시장에 주목하였다. 16년 기준으로 전세계 CPO수입량 중 18.1%에 해당되는 43.9백만 톤을 인도에서수입하였으며, 중국은 전체 10.5%를 수입하였다.

중국의 경우 하반기에 있는 중추절과 내년 초 구정 등의 행사로 인해 하반기에 특히 수요 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수입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산 팜유와 지방유가 CPO 가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CPO에 적용되는 개정 세율이 아직도 대두유 수입에비해 2.5% 낮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인도의 팜유 수출 비중은 약 60% 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조정한 팜유 세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조정 전 (%)	조정 후 (%)
팜유	7.5	15
타식용유	12.5	17.5

MPOC는 2017년 글로벌 식용유와 지방유 가격을 예측했다.(다음 페이지 참조) MPOC의 분석에 의하면 2017년의 전세계 식용유와 지방유 생산은 490만 톤 증가한 2.098억 톤, 소비량은 120만톤 증가한 2.11억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의 2017년 식용유와 지방유 재고 사용 율은(Stock Usage Ratio: SUR) 2016년의 13.11% 보다 하락한 12.29%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UR이 낮아지더라도 CPO 가격 변화와 무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7년에는 팜유와 대두유 생산이 전 세계에서 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Ⅱ. 임산물 시장의 이해 - CPO Market

글로벌 식용유 & 지방유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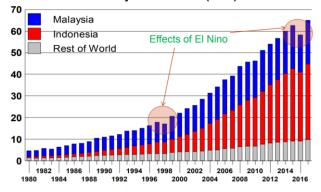
('000 MT)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F
시작 재고	25,747	29,841	29,531	31,174	33,218	27,624
생산	188,468	192,036	202,023	206,775	204,824	209,800
수입	73,317	75,628	77,417	83,118	80,463	84,600
수출	72,917	75,539	77,487	84,086	80,206	85,100
소비	184,774	192,435	200,310	203,763	210,675	211,000
마감 재고	29,841	29,531	31,174	33,218	27,624	25,924
재고 사용 비율	16.15%	15.35%	15.56%	16.30%	13.11%	12.29%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2017년 하반기에 CPO 평균 가격이 2017년 전반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6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이 엘니뇨 현상으로 주춤했다가 회복되는 점과 미국의 2017년 9월 대두유 생산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2017년에 식용유와 지방 유의 수입이 410만MT 증가한 84.6MT, 재고사 용율은 2016년의 13.1%보다 하락한 12.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인 식용유와 지방유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팜유 역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 이다.

Palm Oil Production 1980 - 2017 in Major Countries (MnT)



□. 임산물 시장의 이해 – CPO Market

			Annı	al Aver	ages	Quarterly Averages					Monthly Averages		
			Jan-Dec	Jan-Dec	Jan-Dec	Jul-Sep	Oct-Dec	Jan-Mar	Apr-Jun	Jul-Sep	Jul	Aug	Sep
Commodity	Unit		2014	2015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Ion Energy Commodities Agriculture Beverages													
Cocoa	\$/kg	b/	3.06	3.14	2.89	2.99	2.50	2.10	1.98	1.99	1.99	1.99	2.00
Coffee, Arabica	\$/kg	ь/	4.42	3.53	3.61	3.79	3.86	3.64	3.30	3.28	3.30	3.30	3.23
Coffee, Robusta	\$/kg	b/	2.22	1.94	1.95	2.05	2.27	2.36	2.23	2.27	2.31	2.30	2.19
Tea, average	\$/kg		2.72	2.71	2.64	2.72	2.91	2.91	3.15	3.19	3.19	3.16	3.21
Tea, Colombo auctions	\$/kg	b/	3.54	2.96	3.24	3.29	3.86	4.05	4.10	4.00	3.86	3.96	4.18
Tea, Kolkata auctions	\$/kg	b/	2.58	2.42	2.39	2.64	2.43	1.87	2.57	2.75	2.89	2.76	2.61
Tea, Mombasa auctions	\$/kg	b/	2.05	2.74	2.30	2.24	2.43	2.82	2.79	2.81	2.83	2.75	2.86
Food Oils and Meals													
Coconut oil	\$/mt	b/	1,280	1,110	1,475	1,528	1,567	1,689	1,655	1,575	1,591	1,604	1,531
Copra	\$/mt		854	735	982	1.017	1,037	1,129	1,092	1,045	1,059	1,062	1,015
Fishmeal	\$/mt		1,709	1,558	1,501	1,553	1,461	1,348	1,320	1,379	1,354	1,380	1,403
Groundnuts	\$/mt		1,296	1,248	1,362	1,500	1,583	1,650	1,583	1,402	1,450	1,405	1,350
Groundnut oil	\$/mt	b/	1,313	1,337	1,502	1,648	1,535	1,548	1,542	1,470	1,498	1,478	1,433
Palm oil	\$/mt	b/	821	623	700	715	752	772	696	687	663	674	724
Palmkernel oil	\$/mt		1,121	909	1,290	1,358	1,486	1,520	1,052	1,173	1,007	1,165	1,348
Soybean meal	\$/mt	b/	528	395	380	405	367	378	346	348	352	342	351
Soyboan oil	\$/mt	ь/	909	757	809	810	882	840	815	858	835	855	883
Soybeans	\$/mt	b/	492	390	406	417	412	419	386	398	408	390	397
Raw Materials													
Timber													
Logs, Cameroon	\$/cum		465.2	388.6	387.4	390.7	377.9	372.7	384.9	411.1	402.7	413.2	417.2
Logs, Malaysia	\$/cum	b/	282.0	246.0	274.4	290.7	272.8	261.8	268.0	268.2	264.6	271.0	268.9
Plywood	¢/sheets		517.3	451.2	503.3	533.2	500.4	480.3	491.6	491.9	485.4	497.0	493.3
Sawnwood, Cameroon	\$/cum		789.5	732.6	649.6	629.6	595.1	593.4	612.6	627.1	622.3	621.2	637.7
Sawnwood, Malaysia	\$/cum	b/	897.9	833.3	738.9	716.2	676.8	674.9	696.8	713.2	707.8	706.6	725.3
Woodpulp	\$/mt		876.9	875.0	875.0	875.0	875.0	875.0	875.0	875.0	875.0	875.0	875.0
Other Raw Materials													
Cotton	\$/kg	b/	1.83	1.55	1.64	1.76	1.74	1.87	1.91	1.79	1.85	1.75	1.78
Rubber, RSS3	\$/kg	b/	1.95	1.57	1.61	1.57	1.92	2.54	2.01	1.81	1.75	1.84	1.86
Rubber, TSR20	\$/kg		1.71	1.37	1.38	1.31	1.69	2.12	1.54	1.56	1.52	1.55	1.61

최근 10월에 발표된 World Bank 자료에서는 격 동향을 발표하였다. 커피 등 음료 관련 제 품들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식용유 등 의 Edible Oil 가격을 보면 CPO의 경우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대두유와 함께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목재 제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인기 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산물과 관련된 가 열대우림 제재목 등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그밖에, 천연고무의 경우 인도, 중국 의 경제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지속 하락하였으나 최근 인도를 중심으로 점 차 가격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다.



(1) 트럼프 정권의 최근 완경정책 동양*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구 온 난화 감속을 위한 핵심 방안이었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 가스 제재를 완화시키고 있다. 환경보호청은(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오바마 정권 시절의 온실가스 제재는 화력발전소가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이 입수한 43페이지 분량의 정부 문서에는 고전중인 석탄 업계를 활성화 시킬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강조되어 있었다.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제안은 이산화탄소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지지했던 파리기후협약을 대선기간 중 파기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다. EPA는 즉각 대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의 새로운 제재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EPA의 Scott Pruitt 대변인은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오바마 정권이 '본인들의 권한을 넘는 행동'을 범했으며 미국 대법원이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의 발효방지를 위한 유예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변경에 대해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 대변인은 말했다.



EPA 대변인은 손익분석을 통해 오바마 정권의 청정 에너지 계획이 다방면에서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정권의 다양한 에너지 계획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의 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보다 32%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주(州) 단위의 발전소 별 가스 배출량의 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던 이 계획은 작년에 대법원이 유예를 통지한 이후 관련 업계 및 석탄 친화적인 주(州)의 줄소송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의 저비용과 에너지 절약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석탄발전소들은 오바마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작동을 멈췄다.

전 EPA 국장인 Gina McCarthy는 "청정에너지계 획을 단계적 폐지 또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법 규를 제안하겠다는 약속 없이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닌 기후변화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EPA의 법적, 과학적, 도덕적 의무로부터 대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Source: The Guardian(`17.10.7)



업계에서는 오바마와 McCarthy의 규제 철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National Mining Association의 Hal Quinn CEO는 "청정 에너지 계획은 미국 소 비자의 유리지갑을 담보로 국가의 에너지 백년 대계를 무너뜨리려는 불법적 시도였다"고 평가 했다.

당시 Quinn 사장은 오바마의 계획이 너무 급격하게 석탄 발전소 폐쇄를 장려하여 불안정한 공급 상황을 야기해 비상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신규 에너지 계획으로 인해 연간 2.4억 톤의 석탄 절약, 27,000 일자리 유지와 석탄 연관 사업으로 인한 10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유출된 문건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권이 택한 청정 에너지 계획으로 인해 \$330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시 행정이라고 못 박았다.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The concept of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and for the Chinese in order to make U.S. manufacturing non-competitive.

BETWEETS LUKES 24,831 14,654

THE THE SEC 과거 오바마 정권의 기후온난화 관련 규제에 관해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대통령 된 후 예상대로 강력하게 환경보다는 미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EPA는 청정 에너지 계획으로 인해 90,000건의 천식 사고와 이로 인한 3,600명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계획의 비현실적인 숫자놀이에 깊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수치 분석에 오류가 많 았다고 평가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환경보다는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진다.

(2) 마진 감소에 따른 제재소 운영의 어려움 - 브라질,러시아,핀란드

브라질, 러시아 및 핀란드에서의 제재소 운영이익이 2017년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미국 남부 지역의 제재소의 경우 13년 만에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마진이 증가했다고 Wood Resource Qauarterly(WRQ)가 발표했다.

WRC(Wood Resource Quarterly)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많은 국가의 제재소들이 비용 감축과 이익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높은 원재료(원목) 비용에 비해 제재목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었다. 생산 비용의 약 2/3가 원목 비용이기 때문에 제재소는 항상 원재료와 판매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침엽수 제재목 생산 시, 원목가격은 가장 중요한 비용 요소이다. Wood Resource Quarterly (WRQ)는 1995년 이래 전세계 분기 별 원목 가격을 분석했으며, 특히 전 세계의 주요 제재목 생산에 대한 분기별 비용/수익을 조사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재목을 제조 할 때 원목가격은 생산 비용의 65~70%를 차지하며 목재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기도 하는 요소이다.

제재목 생산 마진은 한 지역 제재소의 수익성 변화 추세와 관련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이다. WRC 최신호에서 미국 남부, 핀란드, 브라 질 및 동부 러시아의 제재소 비용/수익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 남부의 제재소의 평균 마진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는 13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내 주택 부문의 높은 수요로 제재목 가격이 상승한 결과이다.

핀란드에서는 제재목 가격과 기타 생산물의 수익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빠르게 감소했 다. US 통화 기준으로, 25%가량 마진이 감소한 것이다.

러시아 동부 제재소의 원재료 비용은 지난 18 개월 간 제재목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제재소 운영 마진이 감소했다. 그러나 WRQ의 최신호에 따르면, 현재 마진은 지난 13년 동안의 평균보다는 높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제재소 마진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17년 2분기의 마진은 14년 2분기 대비 26%나 감소했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 15년 최대 마진 수익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17년 수입원목 가격 동양 (6월)

국내로 수입되는 남양재 원목이 부족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양재 합판 공급도 차질을 빚고있다. 남양재 합판 수입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합판 11.5T 가격이 지난 8월 대비 약7~10% 인상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재 원목 산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연스레 합판 제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3개월간 합판 수입 동향을 보면 8월에말레이시아 합판수입은 6월 대비 약 34% 감소했고, 인도네시아 합판은 20% 감소, 베트남산합판은 5% 감소된 상황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Tego 합판과일반 합판의 경우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오퍼가격이 높아져 수입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산 11.5T×4'×8' 합판의 경우 지난 6월 까지만 해도 400\$/㎡선 이었으나 8월에 440~450\$/㎡로 상승했다. 덩달아 인도네시아산 합판도 가격이 올랐지만 합판 수입업자들은 같은 가격이라면 반덤핑관세 부과가 없는 인도네시아산 합판 수입 쪽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동남아산 합판을 직수입 하고 있는 A사 관계 자는 "6월전까지 국내 합판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산지에서 가격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으나 당시 한국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여 8월부터 합판 가격을 올리기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원목이 부족하고 생산 경비는 늘어나는 바람에 말레이시아산 합판 가 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 목 수출세로 합판 가격이 10% 정도 인상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시작으로 북미산 구조재 가격에도 인상 조짐이 불고 있다. 8월말~9월초 미국을 강타했 던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북미산 구조재 가격은 물론 OSB와 합판 등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될 것 으로 전해졌다.

줄곧 별다른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수입 제재목들도 이번 추석을 전후로 가 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 목재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격 변동 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북양재의 경우 10월 들어 20\$까지 오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남양재 원목은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석 이후 가격상승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분석 이다.

목조주택 자재를 수입하는 C사 관계자는 "미국 허리케인 영향으로 산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구조재는 물론 OSB, 합판 등 전체적인 가격이올라 지난 8월 대비 약 7~8% 인상됐고 10월에구조재, OSB, 방부목, 공학목재의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Source : 목재신문(`17.10.7)



IV. 한국임업진흥원 소식

(1) 글로벌 익망나눔을 위한 바까익 정료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9월 2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희망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임업진흥원 해외자원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여직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바자회의 수익금은 국내와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임업진흥원 임직원들은 평소 옷장 안에 묵혀 두었던 옷가지와 잘 쓰지 않던 물품 등을 바자회 물품으로 아낌없이 기부하였고, 도서, 생필품, 의류 등 총 450여 개의 물품이 수집되었다. 의류를 제외한 물품과 여직원회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준비된 바자회는 많은 직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수집된 물품들 중 의류는 진흥원 해외조림지가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파라과이로 각각 보내져 조림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의류 전달식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가 현지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함께 기부될 예정이다.

김남균 임업진흥원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마련한 수익금이 국 내·외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 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V. 한국임업진흥원 소식

(2) 파라과이 등 4개국, 한국의 산림자원 보존기술 전수받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9월 29일(금요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도국 산림공무원 연수자들을 대상으로「산림보호 및 희귀식물 보전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일간 「산림보호 및 희귀식물 보전과정」이라는 주제로 4개국(네팔, 부탄, 인도, 파라과이)의 연수자 9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산림녹화 △한국의 산림생물자원보전 기술 △한국의 REDD+협력사례 등 총 10개 강의와 현장학습으로 진행되었고, 본 수료식에서는 연수받은 내용에 관한 본국의 적용방안과 국가별 협력사항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해외산림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20개국 85명의 개도국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복합경영 및 자원관리」,「산림녹화 및 산림휴양」등 '개도국 산림공무원 단기초청연수'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김남균 임업진흥원장은"많은 개도국에서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인한 심각한 산림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전수로 개도국의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산림분야의 국제협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ntact Us...



발행처:한국임업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Tel. 1600-3248)

홈페이지: www.kofpi.or.kr

해외산림정보서비스 : offis.kofpi.or.kr 편집·디자인 : Oceania Consulting Group 문의처 : 소순진 (soimare@kofpi.or.kr)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Any use of this material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Kofpi & Oceania Consulting Group is strictly prohibited

